

## 어린이집의 자유놀이에서 놀이 틀 유지와 변화를 위한 유아의 또래관계 전략들

전가일\* 이순형\*\*

### Examining Children's Peer - relationship Strategies of Free Play in a Child-care Center

Jeon, Ga Il Yi, Soon Hyung

이 연구는 놀이 참여자들의 놀이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놀이 틀 유지와 변화를 위한 유아의 또래관계 전략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실증적 방식을 지양하고 유아의 생활세계인 어린이집의 만 5세반 자유놀이 시간을 참여관찰 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1-2회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의 관찰기록, 참여자 면담, 참여자 기록물 등이다. 연구결과, 유아는 놀이 틀 유지를 위해 '거절하기', '무력화시키기', '동의적 해석해주기', '놀이의 규칙 바꾸기'와 같은 전략을, 놀이 틀 변화를 위해 '이르기', '내편으로 만들기', '제 3자 받아들이기'와 같은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놀이 틀 유지를 위한 유아의 전략들은 유아가 선택과 배제의 변증법과 경계의 떨림이라는 삶의 의미를 경험하는 존재임을 드러내었다. 이 연구는 놀이 틀 유지와 변화를 위한 유아의 구체적인 노력을 드러냄으로써 그동안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오던 '사회적 배척'에 대해 유아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관련 현장의 교사들이 유아의 또래관계에 개입할 때 유아의 관점을 이해하고 보다 구체적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 자유놀이, 놀이 틀, 또래관계 전략, 참여관찰

\* 제1저자: 장안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abigail153@hanmail.net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겸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ysh@snu.ac.kr

## I. 서론

유아에게 놀이는 본능에 가장 충실한 활동이자, 전인적인 발달을 위한 동력이다. 유아는 놀이를 통해 필요한 신체적, 인지적 발달을 이룰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기술들을 습득함으로써 사회성 발달을 이뤄나간다. 그 중에서도 유아가 놀이 속에서 또래와 경험하는 상호작용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유혜령, 2009; Piaget, 1962; Trawick-Smith, 2009; Van Hoorn, 2007; Vygotsky, 1967).

놀이에서 유아의 또래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중 실증적 연구들은 주로 놀이의 발달적 관점에 기초한다. 이 관점에서 유아는 보편적인 과정을 거치며 성장하는 일련의 질서정연한 변화를 보이며 발달하는 존재이다(Cannella, 2002). 발달론적 관점의 놀이 이론(Parten, 1932; Piaget, 1962)들은 유아의 놀이도 모종의 위계를 거치며 발달해 나가며 유아의 사회성 또한 일련의 단계를 거치므로 놀이 속에 나타난 또래와의 관계는 유아의 사회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인식론에 기초하여 놀이 속의 또래관계성을 살핀 실증적 연구들(김리한, 2012; 최윤미, 2010; Lloyd & Howe, 2003; Rubin, 1982)은 주로 유아 놀이의 사회적 유형이나 또래 지위 등을 분석함으로써 놀이를 통해 유아의 사회성 발달정도를 살폈다.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놀이와 특정 발달 영역간의 상관(Lloyd & Howe, 2003; Rubin, 1982), 놀이성이 또래 관계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김리한, 2012; 최경, 2011; 최윤미, 2010)등을 수량화하여 계측하는 실증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 대상 현상인 놀이속의 또래관계를 탈맥락화하여 계측함으로써 놀이 속의 또래 간 상호작용이 놓인 다양한 맥락을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손영수, 2001; 유혜령, 1997; 전가일, 2010; Gadamer, 1960). 관계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속적이며 과정적인 현상이며 유아들의 놀이 속 관계 또한 단일한 시점에 고정되어 있는 아니라 놀이 참여자들의 시도와 반응, 갈등과 협상에 의해 계속해서 변화하는 역동적인 것임(Jo, 1989; Langeveld, 1984; Leavitt, 1994; Van Manen, 1990)을 고려해 볼 때, 놀이 속에서 유아의 또래관계를 살필 때에는 시간을 두고 관찰하며 놀이의 맥락 속에서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래 들어서 생태학적 타당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놀이에서 유아의 또래관계를 자연스런 삶의 맥락을 통해 살피는 질적 접근의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다(Cannella, 2002; King, 1979; Wing, 1995). 이러한 질적 연구들은 놀이에 대한 발생론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것은 놀이의 생성태에 주목함으로써 놀이의 근원과 속성에 접근하려는 관점이다(Bateson, 1955; Gadamer, 1960; Huizinga, 1955). 이러한 발생론적 관점의 놀이 이론에 기

초하여 놀이 속에 나타난 유아의 또래관계를 살핀 연구들(김진영, 2004; 배재정, 정정희, 2003; 오문자, 2011; 유혜령, 2004; 이대균, 임자영, 2009; 황소영, 2011; Lofdahl & Hagglund, 2006; Jo, 1989)은 놀이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놀이의 기능에 주목하기보다 관찰한 놀이 현상 자체의 특징과 의미에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들은 놀이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나는 놀이 현상의 특징과 경험(김진영, 2004; 오문자, 2011; Jo, 1989), 놀이 상황에서 유아의 놀이 집단 가입과 참여(이대균, 임자영, 2009; 황소영, 2011; Lofdahl & Hagglund, 2006), 그러한 경험의 의미(배재정, 정정희, 2003; 유혜령, 2004)등을 고찰하고 있다.

이중 Jo(1989)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유아들의 가상놀이 경계를 고찰함으로써 놀이에서 가상의 경계가 현실에 기초한 것이며(reality basis), 가상의 한계(fantasy ceiling)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 연구는 놀이 속에서 가상의 경계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놀이 참여 유아들의 계속되는 갈등과 협상 등에 의해 전이, 유지, 재조정되는 역동적인 것임을 드러냈는데 이러한 가상의 경계 구성은 가상놀이에서 유아의 또래 간 상호작용의 많은 통찰을 제공한다. 이 ‘가상의 경계’는 Bateson(1955)이 제시한 ‘놀이 틀(play frame)’과 다르지 않다. 놀이 틀은 놀이 과정 중에 생성되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는데, 놀이 속에서 참여자들이 함께 놀이하기 위해서는 놀이의 상황, 가상의 경계 즉 놀이 틀에 대해 합의가 필수적이다(Bateson, 1955). 이러한 놀이 틀에 대한 놀이 참여자들의 합의는 상호주관을 통해 가능하며, 이 상호주관은 놀이 참여자들 간의 계속되는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난다(배재정 · 정정희, 2003). 즉, 유아들은 정해진 놀이 구조나 대본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는 갈등과 협상을 통해 놀이 틀을 구성해 나간다(오문자, 2011; Jo, 1989). 놀이 틀을 구성하기 위한 이러한 상호작용은 상위의사소통(metacommunication)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유혜령(2004)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의 중층성’으로 드러나고 있다. 유혜령(2004)의 연구에서 유아들은 놀이 틀을 넘나들며 놀이의 가상과 현실의 다양한 층위에서 소통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놀이 속에서 또래 상호작용의 많은 부분들이 놀이 틀과 관련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에는 놀이에서 또래놀이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유아들의 또래간 상호작용에 대한 많은 연구들(강인설, 정계숙, 2008; 박은미, 2007; 이대균, 임자영, 2009; 이원영, 손은애, 2006; 황소영, 2011; 황인애, 배지희, 2007; Lofdahl & Hagglund, 2006; Stanton-Chapman & Hadden, 2011)이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주로 또래의 집단놀이의 참여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놀이 속에서 상호작용이 활발한 유아와 또래들에게 거부당하거나 놀이에 잘 진입하지 못하는 유아들의 특징 및 상호작용(황인애, 배지희, 2007; Lofdahl & Hagglund, 2006), 놀이 속에서 외톨이라 불리우는 혼자놀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 변화나 또래놀이 진입 과정(이대균,

임자영, 2009; 이원영, 손은애, 2006; 황소영, 2011) 등을 고찰하고 있다. 이 중 이대균과 임자영(2009)은 자유놀이에서 유아가 또래놀이에 참여하는 전략을 시간적 흐름의 단계로 살피고 있다. 이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놀이상황을 파악하고 역할을 맡거나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해 ‘놀이 주제 탐색하기’, ‘비인기 역할 도맡기’, ‘타협하기’, ‘편 들어주기’와 같은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면서 또래집단 놀이에 진입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또래집단 참여전략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놀이의 유지와 관련되어 있다. 즉, 또래집단 놀이로의 진입은 결국 유아가 참여를 원하는 또래집단의 놀이 틀을 유지해주는 전략의 다름 아니다. 이 연구들을 통해 놀이 속에서 또래관계로 진입하는 과정과 그 성공 여부가 놀이 틀과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놀이에서 또래관계를 살핀 많은 질적 연구들(강인설, 정계숙, 2008; 박은미, 2007; 이대균, 임자영, 2009; 이원영, 손은애, 2006; 황소영, 2011; 황인애, 배지희, 2007; Lofdahl & Hagglund, 2006; Stanton-Chapman & Hadden, 2011)은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기관생활에서의 자유놀이를 통해 유아의 또래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이것은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같은 기관들이 유아가 태어나서 가정 외에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장이라는 점과 자유놀이는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에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일과임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자연스런 일이다(전가일, 2013). 따라서 놀이 틀의 유지와 변화를 위한 유아의 또래관계를 살피고자 할 때는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에서의 자유놀이 시간을 관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가상놀이에서 유아가 또래놀이에 진입하는 과정 속에서 또래와 어떠한 갈등을 경험하며 그것에 대해 어떠한 협상과 노력을 기울이는지 살피고 있는데 이와 같은 또래관계의 많은 부분이 결국은 놀이의 유지, 즉 놀이 틀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놀이 틀의 유지와 변화를 위한 유아의 또래관계 전략을 살피는 것은 놀이에 나타난 유아의 또래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아의 관계전략이 놀이 속에 나타난 유아의 관계성과 유아의 존재를 이해하는 작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계전략을 분석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의 의미탐색을 통해 이러한 전략들이 가진 현상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일 것이다(유혜령, 1997; Smith, 1983). 그러나 놀이 틀 유지와 변화를 위한 자유놀이 속의 유아의 관계전략을 살핀 연구는 드물고, 이러한 관계전략이 가지는 의미를 논의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어린이집의 자유놀이라는 유아의 자연스러운 생활 세계를 참여관찰 함으로써 놀이 속에서 유아가 놀이 틀을 유지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관계전략을 사용하는지 살피고 그러한 관계 전략이 가지는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참여자들의 놀이 현상을 긴 시간을 두고 참여관찰 하여 놀이의 맥락 속에서 놀이 틀과 관계전략을 분석하고 그러한 관계전략 경험이 가지는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유아의 놀이 경험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놀이 틀 유지와 변화를 위한 유아의 또래관계 전략은 무엇인가?

둘째, 놀이 틀 유지와 변화를 위한 유아의 또래관계 전략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 II. 연구방법

이 연구는 특정한 시·공간에서 놀이 장면의 일부를 시간표집하는 방식의 실증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어린이집의 자유놀이 시간에 일어나는 유아와 또래의 상호작용을 긴 시간을 두고 참여 관찰하는 질적인 연구방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관찰자이며 동시에 참여자로서 참여 유아들의 놀이시간을 함께했다. 연구자는 참여관찰뿐 아니라 참여자들과의 대화와 면담을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실제적 놀이 모습을 관찰한 연구자의 관찰일지, 참여자들과의 면담, 교사들이 기록한 생활기록부와 관찰일지와 같은 현장 기록물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 1. 연구참여자<sup>1)</sup>

이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시내에 위치한 A어린이집의 만 5세반인 푸른반 유아들이다. 연구 초기에, 푸른반 유아 부모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방법 등을 간단히 밝히는 편지를 통해 참여 동의를 구하였다. 푸른반 유아들은 모두 14명인데 부모 모두가 연구 참여를 수락해 주어 14명 전원이 연구의 참여자가 되어주었다.

참여관찰 초기에 서술관찰을 하며 각 어린이집의 참여유아들과 라포를 형성하였는데 이를 통해, 참여유아들의 놀이 특징과 놀이 속 관계의 역동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관찰의 초점이 놀이 속에서의 유아의 상호작용을 통한 또래 관계로 좁혀졌다. 또한

---

1) 이 연구의 자료는 2013년도에 학위를 받은 본인의 박사논문 집필 시 수집된 자료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참여자들은 같은 유아들이나 주 참여유아들은 이 연구의 초점인 놀이 특징에 따른 또래 관계 유지와 변화를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새로이 선정하였으므로 박사논문 분석 시와 부분적으로 다르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명의 참여 유아들 중에서도 또래놀이로의 진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놀이 속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유아들에게 관찰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 유아들의 놀이 진입이 언제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유아들은 놀이 속에서 매끄럽게 또래놀이에 진입했지만 어떤 유아들은 번번이 거절당하거나 원하지 않는 또래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통된 점들은 이 유아들은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시도하여 놀이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관찰의 초점이 맞추어진 유아들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인 놀이를 유지와 변화를 위한 관계전략을 많이 보여주었던 유아들을 중심으로 이 연구의 주 참여자 유아 5명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결정된 5명의 주 참여 유아<sup>2)</sup>의 특징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주 참여유아들의 놀이 속 또래 상호작용의 기본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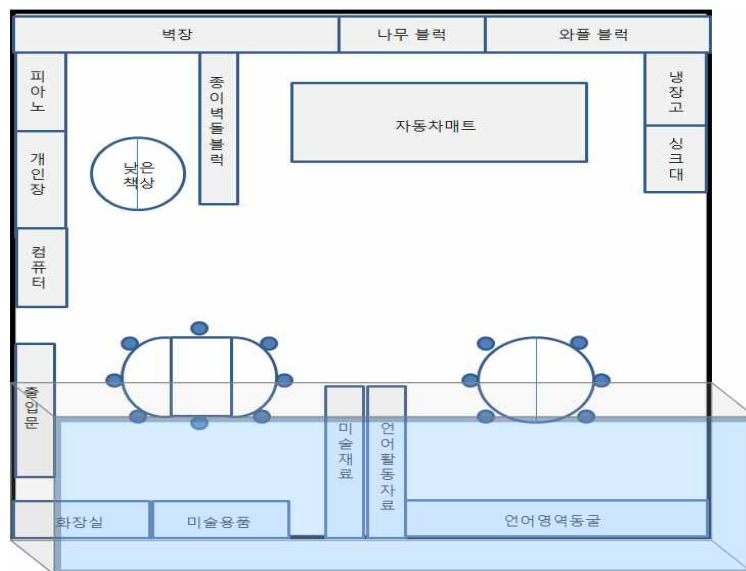
주 참여자	성별	자주하는 놀이유형	놀이에서의 또래 상호작용의 기본 배경
진서	여	미술활동	또래놀이에 대한 진입 시도가 활발하나 자주 성공하지는 못함. 놀이 시 상대의 의견에 대부분 동조하며 따름. 그러나 그런 동조가 또래놀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친구들에게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음.
재영	여	역할놀이	놀이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 매우 활발. 놀이에서 또래에 대한 반응도 활발함. 또래놀이 진입 성공에 대한 가능성이 높을 때 진입을 시도하기 때문에 진입에 대부분 성공함.
희원	여	역할놀이	놀이에서 또래와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면서도 혼자 노는 경우도 많음. 혼자 놀 때도 놀이에 매우 집중하며 주변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음. 또래놀이에 진입하길 원할 때는 대부분 순조롭게 진입하는 편.
우진	남	미술활동	혼자 놀 때는 주로 그림을 그리고 집단놀이 시에는 역할놀이를 자주 함. 또래놀이에 참여하는 경우 특별한 어려움 없이 진입하나 사소한 문제로 친구들에게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음. 여자 친구들과 자주 어울림.
용수	남	쌓기놀이	대부분의 놀이에서 친구들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나 주로 남자 친구들과 어울림. 남자친구들과의 역할놀이에서 주요 역할을 자주 맡음.

2) 표 속에 제시된 참여유아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 2. 연구현장

연구현장은 참여 유아들이 재원하고 있는 A어린이집의 만 5세반인 푸른반이다. A어린이집은 서울 시내 중심에 위치한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로 원아 100명 규모이다. A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교사 대 유아 비율보다 20%정도 낮은 비율로 반구성이 되어있다. 게다가 푸른반은 정원이 다 차지 않아서 한반 유아가 모두 14명인데, 담임교사가 2명이 있으므로 교사 대 유아 비율이 1: 7로 매우 낮은 편이다.

직장 사옥건물에 위치한 푸른반은 한쪽 벽면이 전면 통 유리창으로 되어있다. 이창을 통해 실외 전부를 조망할 수 있다. 교실은 비교적 반듯한 정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교실의 오른쪽 위에 계단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다락방 형태의 복층이 있다. 복층에는 주로 수·조작영역과 같은 조용한 놀이영역이 배치되어 있다. 푸른반은 높은 책상을 아이들 수만큼 비치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개방적인 형태의 영역배치를 할 수 있다. 교실의 벽을 따라서 교재·교구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교실의 중앙은 비어있다. 이 중앙을 가운데 두고 쌓기와 역할 영역이 위치해 있다. 참여현장인 푸른반의 공간 구성도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푸른반 교실의 공간 구성

### 3. 연구 과정 및 자료수집

연구를 위한 본 조사는 2012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서울 시내 직장보육시설인 A어린이집의 푸른반에서 실시되었다. 본격적인 참여관찰을 시작하기에 앞서 A 어린이집의 원장과 연구의 진행과정, 과정상에서 현장의 협조와 개방의 수준 등에 관해 상의하였다. 교사들의 의견을 따라 본격적인 관찰은 2012년 3월 둘째 주부터 실시되었으며 매주 1~2회 방문하여 관찰하였다. 연구 초기인 3월 한 달 동안에는 참여자들과 라포를 형성하면서 참여자들의 놀이를 폭넓게 관찰하는 서술관찰을 하였다. 이후 참여관찰이 계속 진행되면서 관찰의 범위가 자연스럽게 놀이 속에서의 또래관계로 좁혀졌고, 연구 주제와 관련한 현상에 초점을 맞춘 집중관찰을 할 수 있었다. 아울러 놀이 통과 관련한 또래관계 전략을 자주 시도하는 주요 참여자들에게 관찰의 초점을 맞추는 선별관찰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러한 참여관찰과 함께 유아와 담임교사들과의 면담도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질적 연구가 한 종류의 자료 수집에 치우쳐서 현상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데 부족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Wolcott, 1994), 참여관찰자료 뿐 아니라 참여자들과의 면담, 교육계획안이나 관찰일지와 같은 교사들의 보고서 등의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의 종류와 내용 및 구체적인 수집 방법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자료 수집과 방법

수집 자료	자료의 종류 및 성격	수집방법
관찰(observation)	참여유아들의 놀이 장면을 관찰한 연구자의 관찰일지	비디오 촬영, 녹음 및 현장노트. 비디오 촬영분과 녹음 음원은 녹화 후 필요 부분 전사.
면담(interview)	참여유아 및 담임교사와의 면담	면담 시 전체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녹음 후에 전체 전사.
기록물(journal)	① 보육일지 및 관찰일지 ② 적응보고서	푸른반 담임교사들에게 문의하여 참여자들의 놀이 참여 특징, 관계성 등을 알 수 있는 기록물들을 추천받았으며 이중 교사들이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록물(보육일지, 관찰일지, 적응보고서 등)을 선정하여 주었음.



수집된 자료는 크게 연구자가 참여관찰 한 현장기록물과 참여자 면담, 참여자 보고서 등의 3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장기록은 연구자의 관찰일지, 놀이 장면 비디오 촬영 분, 녹취음원 등이다. 연구 초기에는 방문 시 현장노트를 작성하였으며, 3월 중에 참여교사들의 동의를 얻어 현장노트와 함께 비디오 촬영을 실시하였다. 비디오 촬영 분은 놀이의 맥락이 잊히지 않도록 현장을 나온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전사하였다. 비디오 촬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종종 녹음기를 사용하였으며, 이 모두가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현장노트도 힘든 경우에는 축약어를 메모하여 두었다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현장노트로 완성하였다. 참여 관찰이 후반부에 이른 8월부터는 비디오 촬영을 하지 않고 현장노트만을 하였다. 또한 주 참여유아, 담임교사들과 따로 시간을 약속하여 공식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놀이 참여관찰 시 참여자들과 이루어진 대화도 수집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녹음하였으며, 녹음 후 2, 3일 안에 전사하였다. 기록물은 교사참여자들에게 부탁하여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개방할 수 있는 어린이집 기록물을 수집한 것이다. 푸른반 담임교사들은 원장의 동의를 학기 초 부모와의 면담을 위해 4월 달에 작성된 적응보고서, 매일 하루의 전체 일과를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한 보육일지, 유아 개개인의 놀이와 생활에 대한 기록인 관찰일지 등을 제공해 주었다.

#### 4. 자료의 분석과 해석

이 연구는 계층적이며 실증적인 방식을 지양하고 놀이 속에서 놀이 틀의 유지나 변화를 위한 유아의 구체적 관계 전략을 발견하기 위해 유아의 자유놀이를 참여관찰하는 질적인 연구 방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상학적 기술(phenomenological description)과 범주 분석(categorical analysis)이라는 질적 연구의 기초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현상학적 기술(phenomenological description)이란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현상을 최대한 생생하게 기술함으로써 연구자가 독자와 함께 자신이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체험한 현장성을 공감하는 것이다.

범주분석은 유사한 개념과 의미, 주제들의 관계를 논리적 연관성에 따라 범주화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질적 연구에서 질적 자료를 거듭 읽어나가며 반복되는 의미와 주제를 찾아 그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것들이 연결된 방식을 찾아나가는 방법이다(Spradley, 1980). 즉, 전체와 부분들의 관계, 부분들 간의 관계에 대한 자료 분석이다. 이와 같은 범주분석은 놀이 틀 유지와 변화를 위한 유아의 전략이 무엇인지 살피는 두 번째 연구문제에 적절한 분석방법이 되어주었다.

수집된 모든 자료의 전체적인 구조화를 위해, 먼저 자료 전체를 기본 코딩하였다.<sup>3)</sup> 기본적

인 코딩의 과정에서는 에믹 코딩(emic coding)과 구조 코딩(structural coding)을 실시하였다. 에믹 코딩은 자료에 나타난 참여자의 관점을 따라 관련 주제어를 분류하며, 참여자의 언어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구조 코딩은 연구문제에 답이 될 내용을 찾아 구조화하는 작업으로서 참여자의 관점에 기초하는 에믹 코딩과 연구자의 관심에 기초하는 에틱 코딩(etic coding)이 상호보완적으로 겹치면서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렬시키는 것이다 (Saldana, 2009).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의 놀이 틀 유지와 변화를 위한 관계전략을 주제로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유아의 관계전략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기 자료를 거듭 읽으며 귀납적 범주화를 계속해 나가면서 자료들에 나타난 주제어들 간의 관계를 통해 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1. 놀이 틀 유지를 위한 유아의 관계 전략들

참여 유아들은 놀이 틀 유지를 위해 또래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놀이 틀 유지와 변화를 위한 유아의 관계적 노력은 매우 다양했지만 관찰 기간 동안 몇 가지 노력들이 반복되어 나타났다. 그러한 유아의 노력들은 주변적인 차이는 있지만 주요한 요소들이 공통되어 반복되는 일종의 패턴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패턴을 가진 책략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연구 기간 동안 관찰된 유아들의 놀이 틀 유지를 위한 관계전략을 거절하기, 무력화시키기, 동의적 해석해주기, 놀이 규칙 바꾸기의 4가지로 주제화하였다. 참여유아들의 전략 사용방법과 그 대표적 사례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놀이 틀 유지를 위한 관계 전략들

유지전략	사용 방법	대표적인 예
① 거절하기	이미 형성된 놀이 틀을 유지하기 위해 속 놀이에 새로 진입하기 원하는 놀이 상대에게 직접적인 거절을 표현하는 것.	“안 돼. 요리사는 미리 다 정해 놔어.”

3) 2012년에 수집된 자료를 당시의 연구목적에 따라 분석하였다가 이 연구의 목적인 놀이 틀 유지와 변화를 위한 유아의 관계 전략을 주제로 자료를 코딩하여 재분석하였다.

유지전략	사용 방법	대표적인 예
② 무력화시키기	놀이에 관심을 보이며 다가오는 상대의 질문이나 시도 등에 아무런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제안을 무력화시키고 상대가 스스로 물러나도록 해서 해당 놀이의 틀을 계속 유지하는 것	아무런 대답과 반응 없이 하던 놀이를 계속한다.
③ 동의적 해석해주기	진행되고 있는 놀이 속에서 상대의 말이나 의견에 동의하거나 상대와 같은 맥락의 해석을 덧붙임으로써 놀이 틀을 유지하는 것.	“공룡세계는 멸망했어.”
④ 놀이의 규칙 바꾸기	놀이 속 규칙 때문에 놀이 속의 관계가 위기에 처했거나 흔들리려고 할 때, 원래의 놀이 질서나 규칙을 바꿈으로써 놀이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것.	“공짜로 카드 하나 주는 거 어때?”

### 1) 거절하기

< 1 >

제욱: (식당놀이로 가게에서 팔빙수를 만드는 요리사 역할을 하는 친구들 옆으로 가서 말한다.) “내가 요리산데(나도 요리사 하고 싶어)...내내내가(더듣는다.) 요리사 할게.”

우진: “안 돼. 요리사는 미리 다 정해 났어.”

진서: (팔빙수를 받아들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욱아~제욱이도 손님해.”

제욱: (잠시 멀뚱하게 쳐다보다 다시 제빙하는 친구들에게로 간다. 그러자 우진이를 비롯한 요리사 역할을 하는 남자아이들은 제욱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일제히 말한다.)

우진: (제욱에게 손을 내 저으며) “제욱아~ 너 요리사 아니야.”

(푸른반 참여관찰. 2012년 6월 27일)

위에서 푸른반 유아들은 <옛날과 현재>라는 주제로 두 개의 팔빙수 가게를 열었다. 각각의 가게에는 요리사 역할을 맡은 아이들이 제빙기를 사용해 얼음을 만들어 친구들이 진짜 먹을 수 있는 팔빙수를 만들고 있었다. 제욱이는 놀이의 초반, 반 아이들이 블록으로 가게를 꾸미고 역할을 나눌 때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놀이가 진행되고 친구들이 진짜 제빙기를 사용해 팔빙수를 만드는 모습을 보자 놀이에 참여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욱이의 진입 시도는 우진이에 의해서 거절되었다. 우진이는 두 명의

친구와 함께 옛날 가게에서 제빙기를 돌리며 팥빙수를 만들고 있었다. 셋은 손발이 척척 맞아 차례와 역할을 분담하고 있었다. 셋은 이렇게 이미 놀이에 몰입하면서 안정된 놀이 에피소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평소에 놀이 에피소드에 대해 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만 하길 좋아하는 친구로 인식되는 제욱이가 자신도 요리사를 하겠다고 다가왔을 때 우진은 이러한 제욱이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이미 형성된 놀이 구도를 유지하려 했다.

이러한 거절하기 전략은 놀이 속에 이미 형성된 놀이 에피소드 즉 놀이 각본과 같은 놀이 틀이 외부로부터 어떤 시도에 의해서 변화를 맞을 국면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놀이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다. 극놀이라는 특징을 갖는 푸른반의 놀이에서 대부분의 놀이 틀은 이러한 ‘각본’과 연관되어 있다. 푸른반에서 놀이 틀을 유지하는 것은 놀이 에피소드의 유지이다.

이러한 거절하기는 매우 명시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절을 하는 아이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 때문에, 이 전략을 사용하는 유아는 대부분 그 정도의 부담을 질 수 있을 만큼 놀이 권력을 가진 아이들이거나 그러한 부담을 전혀 개의치 않는 유아들이었다. 우진은 그러한 사회적 부담을 개의치 않는 전형적인 경우였다. Lofdahl과 Hagglund(2006)는 유아들의 놀이의 중요한 두 가지 테마를 ‘생존’과 ‘해계모니’라고 파악하며, 아이들이 놀이 속에 나타난 권력관계를 고찰하였다. 그 연구에서 유아들은 놀이에 참여하기 원하는 친구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정 친구를 참여 또는 배제시키기 위해 또래들의 놀이 참여와 배제에 대한 임의적 규칙을 만들어 냈고, 자신들이 부여한 임의적 규칙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연구에서 발견한 거절하기는 특정 또래의 놀이 진입을 거부함으로써 이미 형성한 놀이 속의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연구와 맥락이 비슷하다. 이 연구의 주 참여유아들 중에 주로 회원과 우진이가 거절하기의 전략을 자주 사용했는데, 회원이와 우진이 모두 자신들이 제안한 놀이에서 결정권한이 많은 유아들이었다는 점 또한 그들의 연구결과와 같다.

## 2) 무력화시키기: 무반응으로 상대가 스스로 물러 나도록하기

참여유아들은 새로운 놀이 상대가 나타나 자신들의 진행하고 있는 놀이에 진입하여 놀이 주제가 바뀔 수 있는 위험에 처했을 때, 거절하기 뿐 아니라 상대의 노력에 대해 계속해서 무반응 함으로써 상대가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기도 했다. 특히, 단짝 친구와 둘이서 놀거나 몇 명의 또래와 긴밀한 놀이 그룹을 형성하여 몰입해 있을 때는 새로운 상대가 질문을 하거나

놀이 참여 의사를 표현하면 거기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하던 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극으로서의 놀이에서는 관계가 가까울수록 극의 에피소드에 대한 깊이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상대의 놀이진입 시도에 무 반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상대의 제안이나 시도를 무력화시키고 상대가 스스로 물러나도록 만드는 무력화 전략이다. 이러한 무력화시키기의 전략은 또래 사이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교사들이 전혀 다른 극 주제로 다른 놀이에 대해 요구했거나 놀이 연출을 하려고 했을 때 유아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않고 교사들을 상대로 무력화전략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놀이 에피소드를 지킴으로써 놀이 틀을 유지하였다.

< 2 >

(남자아이들이 넓혀놓은 식당에는 아이들이 더 몰려들었다. 이때, A교사가 아이들의 그림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쌓기 영역의 전시장 쪽으로 가서 전시장을 손본다. 남자 아이들의 '식당'과 교사들의 '전시장'은 아이 두 명이 지나갈 만큼의 공간만 남겨두고 붙어있다. 교사들의 계획된 놀이 인 "전시회장"과 아이들의 즉자적이고 발현적인 "식당놀이"가 교실의 중앙에서 마치 대결을 나란히 붙어 있게 되었다.)

용 수: (교사에게) "(식당이) 점점 넓어져요."

교 사: (전시회장을 손보며) "그래~여기 되게 좋다. 전시회본 다음에 식당 가서 먹고, 식당에서 먹은 다음 배고프면 전시회 보고."

용 수: (전혀 못 들었다는 듯) "완~~전 장사 잘 돼~~" (콧노래)

(용수와 식당의 다른 남자 아이들은 교사의 '전시회장' 언급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더 열심히 주문 받기와 음식 만들기에 골몰했다...(중략)...(10여분 후) 계속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시도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교사는 전시회장 만들기를 포기하고 다른 아이들을 찾아갔다.)

(푸른반 참여관찰. 2012년 5월 25일)

위의 놀이를 관찰하던 날, 푸른반 남자 유아들은 자신들끼리 그 주에 교사들이 계획한 놀이주제와 크게 관련 없는 '식당'을 차렸는데 이 식당이 푸른반 또래 사이에 인기를 끌어 큰 호황을 누렸다. 이것을 지켜보던 교사들은 아이들의 관심을 그 주의 교육주제인 '전시회'로 돌리려고 노력했다. 교사들은 "전시회 본 다음에, 식당 가서 먹고" 하는 새로운 가상을 제안하며 두 놀이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러한 교사의 언급에 대해 우진은 전혀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다. 교사들은 그 후로도 두세 번 아이들이 시회에도 들를 수 있도록 가상을 설정해 보려고 했지만 그 때마다 식당의 남자 아이들은 그러한 교사들의 시도를

번번이 모르는 척 함으로써 이러한 교사들의 변화시도를 무력화 시켰다. 또한, 참여유아들은 교사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하거나 저항 하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교사들의 제안에 반응하는 대신 그저 계속해서 자신들의 놀이에 더 심혈을 기울이면서 교사들의 유도를 무력화 시켰다. 그렇게 해서 남자 유아 참여자들의 식당놀이는 전시회에 흡수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날 자유놀이 시간 후반부에 교사들은 결국 자신들의 계획인 전시회 놀이를 접고 남자아이들과 함께 섞여 식당 놀이를 했다.

푸른반 유아 대부분이 이와 같은 무력화시키기 전략을 종종 사용하였으며 특정 참여자들은 이러한 전략을 빈번히 사용하였다. 이것은 유아가 놀이 속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려야 하고 다른 친구들이 놀이에 진입하기 원하면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사회적 규범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므로(Lofdahl & Hagglund, 2006; Jo, 1989), 공공연한 거절하기 보다는 무력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부담이 훨씬 덜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무력화시키기 전략의 힘은 매우 강력했다. 관찰결과, 유아는 자신의 시도에 대해 상대가 두 세 번 정도 무반응하면 대부분 그 시도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

### 3) 동의적 해석해주기: “진짜 그렇네~”공룡 세계는 멸망했어.”

< 3 >

(아이들이 정리를 시작한다. 회원, 진서, 재영이가 공룡을 바구니에 담는다.)

회 원: “공룡공룡공룡꼬~웅룡! 여기 있는데.

진 서: “히히히”(웃음)

재 영: (할로우 블록을 치우면서) “지진이 나서 무너졌어.”

진 서: “공룡 세계는 멸망 했어~”

회 원: “진짜 그렇네. 공룡 세계는 멸망했어.”

재 영: (블록을 완전히 무너뜨리며) “공룡 세상에 지진이 납니다. 쿵~~”

(블록이 무너지자 셋은 마주 보고 소리 내어 웃었다.)

(푸른반 참여관찰. 2012년 4월 25일)

위에서 푸른반 아이들은 백악기 공룡들 놀이 후에 장난감을 정리하고 있었다. 정리를 하면서도 회원이는 놀이의 흥을 유지했다. 회원이는 진서에게 장난감을 넘기며 음가와 운율을 넣어 공룡의 이름을 불렀고 이것에 대해 진서는 웃음으로 답했다. 재영이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상황을 지진이 나서 무너진 것으로 설정했다. 그러자 진서가 이 설정을 “공룡 세계가 멸망”한 것으로 해석해주었고 이러한 해석에 대해 회원이가 동의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셋이

정리를 하느라 무너뜨린 블록과 공룡모형 있는 상황은 셋의 해석이 힘을 합쳐 “공룡 세계에 지진이 나서 공룡 세계가 멸망한 것”으로 확장 되었다. 이렇게 의미가 확장되면서 진서, 희원, 재영이는 블록을 무너뜨리고 정리를 하는 활동조차 소리 내 웃을 만큼 재미있는 놀이로 만들었다.

푸른반의 놀이에서 이러한 동의적 해석해주기는 위의 예에서처럼 놀이 상대가 표현한 가상의 설정에 새로움을 첨가함으로써 극으로서의 놀이에 재미를 더하면서 놀이를 더욱 공고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참여자들은 놀이의 즐거움 속에서 상대의 놀이 설정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와 비슷한 맥락의 해석을 덧붙임으로써 서로 놀이의 즐거움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놀이의 즐거움과 놀이의 가상과 그 설정을 공유하는 것은 놀이 속에서 형성된 관계들을 급속하게 가깝게 함으로써 진행되고 있는 놀이 틀을 공고히 하는 전략이다.

#### 4) 놀이규칙 바꾸기 : “공짜로 하나 주는 거 어때?”

< 4 >

(재영이가 군인 직업 카드를 사 가자 진서의 표정이 안 좋아진다.)

희 원: (진서에게) “왜 기분이 안 좋아? 아까부터 니가 하고 싶었어?” (연구자에게) 선생님~  
진서는 군인을 좋아해서 그래요. 커서 군인 되고 싶어요. (진서에게) 왜? 평화를 지켜서?

진 서: (계속 아무런 대답 없이 뚱한 표정으로 앉아있다.)

재 영: (진서의 표정을 살피며) “내가 샀는데...나도 하고 싶어”

희 원: “어~진서 기분 많이 안 좋은가 봐요. 어떻게 하지?”

연구자: “그러게 어떻게 하지?”

재 영: “이거 어때요? 우리가 군인 그림을 딱 종이에 그려서 주는 거 예요.”

연구자: “그럴까?”

희 원: “아니아니, 진서는 여기 게임에 있는 직업카드를 갖고 싶은 거 같아요. 여기 있는 거 (다른 직업카드 통을 가리킨다)를 공짜로 하나 주는 거 어때? 그럴까?”(진서를 바라본다.)

진 서: (고개를 끄덕인다.)

희 원: (카드를 하나를 내민다.) “자~여기 공짜로 발레리나 카드를 하나 받으세요~”

진 서: (발레리나 직업카드를 받아들더니 얼굴이 조금 환해진다.)

재 영: “어~나도 발레리나 카드 받고 싶었는데...” (진서를 바라보며) “우리 바꿀까?”

진 서: “응.” (환하게 웃으며 발레리나 카드를 내민다. 진서와 재영은 서로의 직업 카드를 바꾼다.)

(재영과 진서 둘 다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친다.....(중략).....여전히 재영의 말은 진서보다 뒤에 있다. 진서가 주사위를 다시 재영에게 주면서 말한다.)

진 서: “자~~재영이 차례” (하지만 이번엔 원래 진서 차례였다)....(중략)....

(진서 먼저 결승점에 들어와 게임이 끝났다. 셋은 만족한 얼굴로 웃으며 끝났다고 박수를 쳤다.)

(푸른반 참여관찰. 2012년 6월 15일)

위에서 진서와 회원, 재영이는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재영이가 군인직업 카드를 사자 진서가 표정이 안 좋아졌는데 회원이는 이를 단번에 알아보고, 그 이유까지 정확히 추측해서 말했다. 군인카드에 대한 진서의 애정을 확인한 회원과 재영이는 게임을 유지하면서도 진서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회원이는 “공짜로 카드 하나를 주자”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이것은 이제까지 이 놀이에서 부여되고 있었던 질서와는 다른 것이었다. 진서가 공짜로 발레리나 직업 카드를 받게 되자 이번에는 재영이가 그것을 부러워했고 둘은 카드를 교환했다. 그러자 게임의 판도가 달라져 앞서가던 재영이의 말은 뒤로 갔다. 이번에는 이것을 유심히 보던 진서가 재영이의 말이 너무 뒤에 있다며 앞으로 몇 칸 이동했다. 이것 또한 이제까지 이 놀이에 전혀 없었던 규칙의 파격이었다.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재영이의 말이 뒤에 있는 것을 보고 진서는 이번에 자신의 차례임에도 재영이의 차례라고 하며 재영이가 주사위를 던지게 했다. 그렇게 해서 진서가 먼저 홈에 들어왔다.

게임의 규칙은 뒤죽박죽이 되었고 승패도 애매했지만 아이들은 그 누구도 승패에 관심이 없어 보였다. 공짜로 직업카드가 제출되었고, 규칙과 다르게 직업 카드를 서로 바꾸고, 근거 없이 말을 앞으로 세우고, 주사위를 던지는 순서도 바꾸었지만 셋 중 누구도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저 즐거워했다. 그 순간 아이들에게 놀이의 규칙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함께하는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는 놀이의 흥이었고, 놀이를 함께하는 서로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놀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었다. 푸른반 유아들은 이렇게 세세한 규칙이 있는 보드게임도 극놀이의 흥으로 놀았다.

놀이규칙 바꾸기 전략은 참여자들이 놀이의 흥과 즐거움을 공유할 때 나타났는데 이것은 선행연구들(김진영, 2004; 이대균, 임자영, 2009; Gadamer, 1960)에서와 같이 흥과 즐거움은 유아가 놀이에 몰두하고 놀이를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흥과 즐거움의 공유는 놀이 참여자들의 결속과 우정을 강화하는 역할을 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 연구에서 참여



자들은 놀이의 규칙으로 인해 놀이의 흥과 즐거움이 약화되고 그것으로 인해 놀이 속의 관계가 위기에 처하자 자발적으로 놀이의 규칙을 바꿈으로서 놀이의 흥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놀이질서 바꾸기를 통한 놀이의 흥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놀이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보드게임조차도 극 놀이의 흥으로 놀던 위의 아이들의 위 놀이는 말미에 직업극 놀이로 서서로 바뀌었다. 놀이의 흥을 위해 놀이를 유지하려던 유아들의 노력이 결국 놀이를 변화시켰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놀이규칙 바꾸기’ 전략은 놀이 틀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서 변화시키기 위한 연속 위에 있다.

### 3. 놀이 틀 변화를 위한 유아의 관 전략들

이 연구에서 유아는 놀이 속에서 놀이 틀 유지를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이미 형성된 놀이의 경계나 가상의 영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관계적인 노력을 했다. 이것은 놀이 속에서 이미 구성된 놀이 틀을 바꾸기 위한 일종의 관계 전략이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전략을 모두 망라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노력들을 유형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표 6> 놀이 틀 변화를 위한 관계 전략들

변화 전략	방법	대표적인 예
① 이르기	교사나 놀이위계가 높은 친구처럼 자신보다 많은 놀이 결정권을 가진 타인에게 놀이 상대의 부당함을 이름으로써 놀이 틀을 바꾸고자 하는 것.	“선생님, 열차 이름 갖고 장난하고 있어요!!”
②내편으로 만들기	외부로부터의 어떤 자극을 계기로 놀이 속 상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 들여 결속을 다짐으로써 단번에 놀이 속의 관계 구도와 놀이 틀을 변화시키는 것.	“너 친구들에게 못되게 군적 없지?”
③ 제 3자 받아들이기	놀이 외부에 있던 제 3자를 놀이 속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놀이 틀을 변화시키는 것.	“들어오라고 하자. 여기를 다시 넓은 식당으로 하자.”

1) 이르기: “선생님, 열차 이름 갖고 장난치고 있어요.”

참여유아는 관계의 변화를 원하고 그것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그 상황을 자신보다 더욱 위계가 높은 혹은 더 많은 권력을 가진 타인에게 이름으로써 그 관계의 흐름을 바꾸려고 했다. 아이들은 보통, 교실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이르곤 하였다.

< 5 >

(제육이가 의자를 기차처럼 길게 늘어놓고 그 제일 앞에 앉자 그 뒤에 우진과 용수가 뒤에 와서 앉는다. 제육이가 “부웅”소리를 내며 운전하는 흉내를 낸다....(중략)....)

제 육: “충무로 3가 역입니다.”

우 진: “이번 역은 뚝차 역입니다.”

제 육: “야~충무로 벌써 지났는데 왜 뚝차역이라고 말하는 거야.”

용 수: “이번 역은 제육이 역입니다.”

(다른 남자 아이들이 웃는다. 그러자 제육이는 별떡 일어나서 커다란 바게트 빵 장난감을 들어 던진다.)

우 진: (바게트를 보며) “이번 역은 샌드위치 역입니다.”

제 육: (우진이를 한번 노려보더니 교사에게 말한다.) “선생님 우진이가 열차이름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요.”

(푸른반 참여관찰. 2012. 3. 28)

위에서 푸른반 남자 유아들은 기차놀이를 하고 있었다. 교실의 의자를 죽 연결해 놓고 제육이가 제일 앞에 앉았고 그 뒤로 우진과 용수 등이 앉아서 기차 타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제육이가 설정하는 기차역의 가상을 잘 따르던 남자 아이들이 몇 번의 승하차 뒤에 서서히 제육이가 말한 정차역의 이름으로 장난을 치기 시작하더니, 용수가 정차역의 이름을 “제육이 역”라고 바꿔 말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키득거리고 좋아했다. 이것에 대해 제육이가 “야~”를 외치며 그렇지 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우진이는 들어주지 않았고, 역 이름 바꾸기를 계속 했다. 그러자 급기야, 제육이는 교사들에게 우진이를 일렀다. 교사들은 차분하게 우진이에게 “자꾸 그렇게 하면 친구가 기분이 나쁘다”고 이야기 했고, 그 뒤 역 이름 바꾸기는 소강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유아의 이르기는 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놀이 속에서 자신보다 높은 위계의 놀이친구나 자신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는 친구들에게 다른 친구의 행위

나 부당함을 이름으로써 그 놀이 틀을 바꾸려고 시도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그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진입을 막는 관계들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기도 했고, 다른 친구들과 연대하여 이미 진행되고 있는 놀이의 주도권을 자신에게로 이동시킴으로써 놀이의 틀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도 했다.

이 연구에서 유아가 진행되고 있는 놀이 틀을 바꾸기 위해 자신보다 많은 권한을 가진 타인에게 이르는 사안들은 주로 다음과 같았다.

< 6 >

“선생님~\*\*가 안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 애네 칼싸움해요.”

“내가 안 밀었는데 밀었다고 했어요.”

“자리가 좁다고 못 들어가게 해요.”

“\*\*야~ @@이가 자꾸만 ‘왜~’ 그러면서 짜증내.”

“재들이 우린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

“자기들끼리 벌써 다 정해 났데”

“야~\*\*가 자기 혼자만 경찰 한다고 했어.”

## 2) 내편으로 만들기: “너 친구한테 못 되게 군 적 없지?”

놀이 속에서 유아는 놀이 외부로부터 오는 다양한 제안과 자극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제안은 놀이 내부의 어떤 유아에게는 놀이 틀 유지에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유아에게 그것은 놀이 틀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다. 놀이 내부의 관계가 어떤 갈등으로 흔들릴 때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며 놀이의 관계지도를 바꿈으로써 놀이 틀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어느 날 진서는 용수와 극의 역할을 정하는데 있어 기록의 시점을 두고 마찰을 빚으며 갈등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의 시점에 다른 친구가 나타나서 용수에게 글씨체에 관해 시비를 걸었다. 그러자 진서가 “너는 친구한테 못 되게 군 적 없지?”라는 말로 새로운 친구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줌으로써 진서는 단숨에 새로운 친구와 같은 편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진서가 새로운 친구를 단숨에 자신의 편으로 만들며 놀이에 진입시킴으로써 진행되고 있던 극놀이의 역할이나 가상의 영역 등의 놀이 틀이 단숨에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아이들의 ‘내편으로 만들기’는 아이들이 각각이 놀이의 내부와 외부에 있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한편이 되면서 단숨에 관계의 지도를 바꾸어 준다. 이렇게 되면서 같은 편이

되는 유아들은 새로운 동맹관계가 되고 한편의 외부에 남겨진 유아들은 결과적으로 배척을 당하는 모습이 된다. 이 같은 내편으로 만들기는 선행연구들(강인설, 정계숙, 2008; Jo, 1989)과 마찬가지로 그 상대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바뀌므로 동맹과 배척의 관계지도도 계속해서 바뀌었다. 이와 같은 ‘내편으로 만들기’ 전략은 이대균과 임자영(2009)의 연구에서 유아의 또래 놀이 진입 전략 중 하나로 발견한 ‘동지 만들기’ 전략과 비슷한 것이다. 연구자들은 유아가 자유놀이에서 또래 집단 놀이의 참가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시간의 흐름을 두고 살펴보았는데, 유아가 또래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는 전략중의 하나로 사용한 것이 ‘동지 만들기’ 전략이다. 그 연구에는 동지 만들기 전략이 또래관계 진입 과정 중 일부였으나 이 연구에서 ‘내편으로 만들기’ 전략은 동맹과 배척의 상황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놀이의 틀을 바꾸어 주는 전략 중 하나이다.

### 3) 제 3자 받아들이기 : “들어와.”

< 7 >

회 원: “아니야~ 모두 다 같이 들어와도 돼”

진 서: “그치만 너무 좁잖아! 3명밖에 못 들어와”

(진서와 회원의 다툼을 바라보며 우진이가 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눈치를 본다.)

회 원: “들어오라고 하자. 여기를 넓은 식당으로 하자~”

(진서가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한다.)

진 서: “우진이 들어와.”

회 원: (활짝 웃으며) “맞아~모두모두~같이”

(우진이가 종이블록을 가져온다. 진서는 우진이가 가져 온 블록을 받아 들고 공간을 넓힌다.)

우진이가 들어와 넷이 함께 음식을 만든다.)

(푸른반 참여관찰. 2012. 6. 1)

위에서 진서는 회원과 블록으로 부엌을 차려 놓고 놀고 있었다. 이 둘이 놀이에 지영이와 우진이가 동시에 다가오면서 공간 문제가 발생하자 새로운 놀이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진서와 회원의 의견에 차이가 있었다. 진서는 부엌이 좁기 때문에 세 명까지만 들어 올 수 있고 이미 자신이 재영이에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회원은 자신들의 놀이를 원하는 친구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싶어 했다. 우진이는 재영이가 가게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슬쩍 발을 들여 놓았다가 진서와 회원이가 자신을 받아들이는 문제를 놓고 새로운 실랑이를 벌이자 선뜻 들어오지 못하고 눈치를 보며 망설였다. 이때, 회원

은 ‘부엌’이라는 가상의 영역을 ‘넓은 식당’이라고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회원에게 “3명 밖에 못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던 진서는 회원의 가상 영역 즉 놀이 틀 변화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진서는 눈치를 보는 우진의 모습을 보더니 마음이 약해졌는지 한숨을 쉬며 우진에게 들어오라고 하였다. 결국은 회원이 원하는 바와 같이 재영이와 우진이 모두 놀이에 참여하게 되었다. 회원이는 매우 만족스런 표정으로 제자리에서 콩콩뛰며 좋아했다.

회원과 진서가 자신들의 놀이에 참여를 원하는 재영이와 우진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진서와 회원의 갈등은 끝났고, 놀이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아이들은 네 명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공간을 넓혀 식당이 되었고, 새로이 메뉴가 개발되었다. 이처럼 놀이 밖에 있던 제 3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놀이 틀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강력한 전략이다.

#### 4. 또래관계 전략의 의미

이 연구에서 발견한 유아의 놀이 틀 유지와 변화를 위한 관계 전략이 우리 삶에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어떤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결국 해석의 작업이다(서근원, 2008; 이근호, 2007). 이 연구에서는 연구결과 전체를 관통하는 있는 주제를 찾는 노력을 통해 관계전략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선택과 배제의 변증법’, ‘경계의 떨림’ 이라는 두 가지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의미의 해석을 통해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유아의 삶과 존재를 이해하고자 한다.

첫째, 놀이 틀의 유지와 변화를 위한 또래관계 전략들은 선택과 배제의 변증법을 드러내고 있다. 거절하거나 무력화시키기, 동의적 해석해주기와 같은 유아의 노력들은 이미 발생하여 “놀이지고” 있는 해당 놀이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유아의 관계 전략이다. 이 전략들은 집단놀이에서 어떤 특정 대상을 놀이친구로 선택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하나의 놀이에서 유아는 특정 친구(들)을 이 놀이의 상대로 상호 선택했다. 애초에 이 선택은 유아에게 다른 친구들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하더라도 놀이 참여자들의 놀이 틀 구성되고 놀이의 흥이 더해 갈수록 놀이 틀을 유지하려는 힘은 강해진다(이대균, 임자영, 2009; Gadamer, 1960; Harrist & Bradley, 2003). 그러한 놀이 유지에 대한 지향성은 제 3의 친구가 이 놀이에 들어오려고 할 때 ‘거절하기’나 ‘무력화시키기’ 등의 전략을 통해 놀이 틀 외부의 친구를 배제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유아는 특정 친구를 놀이 상대로 선택함으로써 다른 친구들을 배제한 셈이다.

거절하거나 무력화시키기와 같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배제가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놀이 틀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계전략인 동의적 해석해주기의 경우도 상대 친구와 놀이 틀을 공유하고 그 놀이 틀이 견고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동의적 해석의 상대인 친구를 제

외한 다른 친구들은 해당 놀이 밖으로 배제하는 것이다. 또한 ‘이르기’, ‘내편 만들기’, ‘제 3자 받아들이기’와 같은 놀이 틀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들의 경우도 그러하다. 유아가 특정 상대를 자신의 편을 만들고, 놀이에 받아들일 때 남은 친구들은 배제된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전략들에는 항상 선택받지 못함으로써 배제당한 상대들이 존재하게 된다. 유아는 놀이 속에서 유아가 택한 하나의 관계전략은 하나의 선택이고 이것은 늘 배제를 수반한다. 이렇게 유아의 놀이 속에 나타난 놀이 틀 유지와 변화를 위한 유아의 관계전략은 ‘선택과 배제’(Foucault, 1971)의 변증법이라는 우리 삶의 의미의 한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놀이 틀 유지와 변화를 위한 유아의 또래관계 전략은 유지와 변화라는 그 경계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연속적으로 걸쳐져 있다는 점에서 경계의 “떨림”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놀이 틀을 유지하려는 전략과 변화시키려는 전략은 서로 배타적인 힘으로 보이지만 어느 지점에서 이 둘은 서로 만나기도 하면서 그 경계가 희미해진다. 연구결과에서 놀이 틀 유지의 전략의 하나로 분석한 ‘놀이규칙 바꾸기’와 같은 전략이 대표적이다. 놀이 참여유아들은 이미 형성된 놀이 틀과 그 안에서의 관계들을 유지하기 위해 놀이 규칙까지 바꾸어 나가지만 결국, 이로 인해 그 놀이는 전혀 다른 놀이 틀을 가진 다른 놀이가 되었다. 즉, 유지를 위한 전략이 변화를 야기한 것이다. 실제로, 연구에서 나타난 다양한 전략들은 궁극적으로 놀이 틀 유지와 변화 중 무엇을 위한 것인지 배타적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나의 전략이 어떤 흐름에선 유지를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흐름에선 변화를 위한 전략이 되기도 한다. 그 경계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흐르며 떨고 있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조광제(2012)의 사유는 경계의 흐름, 경계의 “떨림”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다.

“흐름은 걸쳐 있음이다. 자기임과 자기 아님에 걸쳐있는 것이 흐름이다. 공간적으로 보면, 지금은 자기임과 자기 아님에 걸쳐 있다. 걸쳐 있다는 것은 떨린다는 것이다. 이쪽과 저쪽에 동시에 걸쳐 있음으로써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리고 동시에 저쪽에서 이쪽으로 흐르는 것이 바로 떨림이다.”

(조광제, 2012)

모든 개별 놀이들의 경계 즉, 놀이 틀은 놀이 틀을 유지하려는 힘과 변화시키려는 힘이 만나 이루어 내는 결과다. 놀이 틀 유지를 위한 노력이 어느덧 놀이 틀을 변화시킨다. 유지와 변화는 서로 배타적인 실체가 아니라 이쪽에서 저쪽으로 흐르는 현상의 이름이다. 그래서 결국 그 틀의 경계는 그렇게 항상 떨린다.

##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어린이집의 자유놀이 시간을 참여관찰 하여 유아가 놀이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관계 전략을 사용하는지 살펴보고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들과 연관 지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가 가지는 이론적이며 실제적인 의의 및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첫째, 놀이 틀 유지를 위한 유아의 전략은 ‘거절하기’, ‘무력화시키기’, ‘동의적 해석해주기’, ‘놀이 질서 바꾸기’ 등으로 나타났다. 놀이 틀 유지를 위한 이러한 유아의 전략 중 ‘거절하기’와 ‘무력화시키기’는 외부로부터의 진입을 차단하여 내부의 또래관계와 놀이 틀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소극적인 방식의 유지전략으로, ‘동의적 해석해주기’와 ‘놀이 질서 바꾸기’는 내부의 관계 유지 자체를 위한 놀이 주체들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적극적 유지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소극적 유지전략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흔히 ‘관계성 공격성’ 혹은 ‘사회적 공격성’으로 불리는 또래 배척과 연관 지을 수 있다. 관련 연구들(강인설, 정계숙, 2008; Coyne, Archer, & Eslea, 2006; Young, Boye, & Nelson, 2006)은 ‘사회적 공격성’을 우정과 사회적 지위를 손상하는 방식으로 해를 입히는 것으로 정의하며 언어적 비언어적 사회적인 배척, 관계 조작, 악의적인 가십 등의 관계적 공격성을 포함한다. 사회적 공격성과 관련된 논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연구에서 발견한 ‘거절하기’나 ‘무력화시키기’와 같은 소극적인 관계유지 전략은 강인설과 정계숙(2008)의 연구에서 나타난 유아의 ‘은근한 배척’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 연구에서 유아가 임의적인 규칙을 설정하여 자신들이 원치 않는 또래의 놀이 진입을 막는 것을 은근한 배척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공격성 연구의 관점에서는 거절하기나 무력화시키고 같은 놀이 속의 관계유지 전략을 또래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하는 ‘배척’, 혹은 ‘사회적 공격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또래 간의 우정이나 사회적 지위에 해를 입히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사회적 동맹을 통해 힘을 행사했다기보다는 자신들이 몰입하고 있는 놀이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다. 하나의 놀이가 이미 진행되면 놀이에 몰입한 놀이 주체들은 자신들의 놀이 에피소드를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이대균, 임자영, 2009; Gadamer, 1960; Harrist & Bradley, 2003)을 염두해 볼 때, 이와 같은 유아의 관계전략을 힘의 행사라는 관점에서 보기 보다는 놀이 속의 관계, 놀이 에피소드, 놀이 영역과 같은 놀이 틀을 지키고자 하는 유아의 노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놀이 틀을 바꾸기 위한 유아의 전략은 ‘이르기’, ‘내편으로 만들기’, ‘제 3자 끌어들이

기’ 등으로 나타났다. ‘이르기’는 자신보다 강력한 놀이 결정권을 가진 교사나 놀이위계가 높은 또래에게 상대의 부당함을 일러주고 도움을 받음으로써 단번에 놀이 틀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Samuelsson과 Johansson(2009)의 연구와 같이 왜 유아들이 교사와 같이 자신보다 상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을 놀이에 초대하는지를 알게 한다. ‘내편으로 만들기’는 놀이 속에서 갈등에 봉착했던 유아들이 놀이 밖의 자극이나 제안을 계기로 단번에 다른 구도의 동맹을 형성함으로써 놀이 틀을 바꾸는 것이다. ‘제 3자 끌어들이기’는 놀이에 새로운 제 3의 참여자를 받아들임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놀이 영역과 주제 등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들은 일종의 배척과 동맹의 유형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놀이 참여자들의 배척과 동맹은 강인설과 정계숙(2008)의 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고정적이지 않으며, 대부분 일시적이다. 이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관계유지와 관계변화의 전략을 실행함에 있어 수시로 그 배척과 동맹의 상대가 달라지곤 하였다. 진서는 푸른반에서 놀이 결정권이 약하고, 주로 또래들에게 동조하는 낮은 놀이위계 속에 있었지만 진서와 진서를 둘러싼 또래들의 다양한 관계유지와 변화 전략 속에서 진서도 수시로 배척과 동맹의 상대가 되었다. 우진과 용수도 관계유지와 변화를 위한 전략들을 구사하며 수시로 서로 동맹이 되기도 배척의 상대가 되기도 하였다. 푸른반의 놀이 속에서 유아에게 고정된 내편과 상대편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Jo(1989)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아의 놀이 규칙과 놀이 속의 관계는 고정되어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재구성되고 변화되어 가는 역동적인 과정임을 드러내어 준다. 따라서 놀이에서 다른 또래의 진입에 대한 유아의 거절이라는 현상을 ‘사회적 배척’이라는 부정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자신들의 놀이를 지키기 위한 유아의 노력이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러한 유아의 노력들에 초점을 기울인다면 거절하기, 무력화시키기, 이르기, 내편으로 만들기와 같은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현상들의 이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들의 중층성을 발견하고, 세계의 모호함과 삶의 불확실성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조광제, 2004; Heidegger, 1997; Savin-Baden, & Major, 2010).

셋째, 어린이집의 자유놀이 속에 나타난 놀이 틀 유지와 변화를 위한 유아의 관계전략은 ‘선택과 배제의 변증법’, ‘유지와 변화의 경계 떨림’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놀이 틀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계 전략들은 하나의 선택이 곧 배제를 수반하는 변증법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 전략들은 유지와 변화의 경계의 고정되어 있기보다 연속적인 흐름과 같은 의미를 지님을 알게 한다. 이렇게 ‘선택과 배제의 변증’과 ‘경계의 떨림’이라는 삶의 단면들이 놀이를



통해서도 드러난다는 것과 유아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해하게 한다(전가일, 2013).

위와 같은 연구 결과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유아기관에서 일어나는 유아들의 놀이 속의 또래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관련 현장에 적용 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유아의 놀이에서 나타나는 또래 상호작용 중 거절하기, 무력화시키기, 이르기, 내편으로 만들기와 같은 전략들은 또래 배척이나 사회적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이것은 놀이 틀 유지와 변화를 위한 유아 나름의 전략일 수 있으므로 교사는 유아의 놀이에서 또래관계 개입 시 이를 이해하고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교사가 이와 같은 전략에 직면하여 그것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여길 경우, 이러한 유아의 전략을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며 지도의 대상으로 삼기에 앞서 이러한 전략이 나타나는 현상의 중층성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유아들을 관점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는 유아가 또래 놀이의 진입을 통해 놀이 속의 관계형성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관계의 유지와 변화를 위해서는 또 다른 유아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놀이가 시작되면 놀이 밖에서 그 놀이에 참여를 원하는 유아들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관계맺기를 시도하며 집단에 진입하려고 시도하고 반대로 이미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은 이미 진행된 놀이에 몰두하기 위해 다른 유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경향이 있다(이대균, 임자영, 2009; Gadamer, 1960; Harrist & Bradley, 2003). 이미 진행되고 있는 놀이 속에 유아가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뿐 아니라 놀이 틀을 유지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그 틀을 바꾸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교사가 놀이 속에서 유아가 또래관계를 형성을 원활히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유아의 놀이 진입 뿐 아니라 놀이 틀을 유지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유아가 놀이 속에서 보이는 유연성에 대해 관찰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유아의 놀이에 개입 할 때, 유아들이 이미 제시한 놀이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놀이를 확장하거나 놀이의 흥을 더하는 방식으로 참여하여 좋은 모델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참여자와 현장의 특수성 및 사례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이 연구는 놀이 속에 나타난 유아의 관계전략을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생활에서의 자유놀이에 한하여 살펴보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놀이 장면을 견주어 고찰하지 못하였다. 유아가 놀이 틀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관계전략을 사용하는지에 관해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관에서의 자유놀이 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의 놀이, 지역 놀이터에서의 놀이와 같은 기관 외의 놀이 장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이 연구는 놀이 속에 나타난 유

아의 관계전략을 다른 사회적 현상들과 비교하여 봄으로써 유아의 관계전략이 가지는 대 상황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에는 부족하였다. 모든 사회 현상들은 그것을 둘러싼 매개상황과 대 상황에 영향을 주고받는다(조용환, 2008). 놀이 속에 나타난 유아의 관계전략 또한 어린이집 이 놓여있는 지역사회와 특성과 같은 대 상황이나 유아의 다른 기관 경험과 같은 매개상황과 관련되어 있을 것인데(전가일, 2013), 이 연구에서는 놀이 속에서의 관계전략을 대 상황 등의 사회적 맥락과 연관하여 파악하는 데는 부족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놀이 속의 또래관계를 살핀 기존의 연구들이 놀이 진입을 위주로 살핌으로써 관계형성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놀이 틀 유지와 변화를 위한 관계전략을 살피고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으므로 선행연구들을 보완하여 유아의 놀이 속 또래관계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놀이 틀 유지와 변화를 위한 유아의 구체적인 노력을 드러냄으로써 유아 관련 현장의 교사들이 유아의 관점을 이해하고 놀이 속에서 유아의 또래 간 관계에 개입할 때, 유아를 보다 실제적으로 돕는데 기여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인설, 정계숙(2008). 만 3세 유아의 놀이에 나타난 관계적 공격성: 사회적 배척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3(4), 21-50
- 김리한(2012). 학령기 아동의 정서지능과 놀이성이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신, 홍용희(2012). 유치원 만 3세반 유아들의 친구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32(6), 329-355
- 김진영(2004). 유아들의 유머와 친구 관계에 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24(6), 113-133.
- 박은미(2007). 교사개입전략을 통한 비사회적 유아의 또래관계 변화과정.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배제정, 정정희(2003). 유아기의 사회적 가상놀이와 상호주관성 발달에 관한 이론적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8(1), 155-175.
- 서근원(2008). 질적 연구 수행의 의미. **교육학연구**, 9(46), 133-160
- 손영수(2001). 유아 생활세계에서의 놀이와 사고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 **교육인류학 연구**, 4(1), 103-132.
- 오문자(2011). 집단 즉흥공연으로서의 가상놀이 : 만 4세 남아들의 놀이 틀 협상과정 분석. **유아교육연구**, 31(6), 255-283

- 오채선, 엄지숙(2004). 유아들의 놀이에 나타나는 우정에 대한 의미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9(2), 223-247
- 유혜령(1997). 현대 해석학의 관점에서 본 아동 이해의 문제. **아동교육**, 6(1), 96-110.
- \_\_\_\_\_(2004). 유아의 역할놀이에 나타난 모방과 창조의 미학. **유아교육 연구**, 24(3), 277-302.
- \_\_\_\_\_(2009). 인간교육을 위한 생명의 논리: 놀이중심 유아교육론에 대한 반성. 한국교육 인류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 이근호(2007).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현상학: 독특성과 보편성 사이의 변증법적 탐구 양식. **교육인류학연구**, 10(2), 41-64.
- 이대균, 임자영(2009). 자유선택활동 상황에서 발견되는 만 5세 유아의 또래 집단놀이 참여전략: 쌓기 영역과 역할영역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4(2), 409-438
- 이원영, 손은애(2006). 만 4세 여아의 또래놀이 참여과정 탐색. **유아교육연구**, 26(2), 237-262.
- 임부연, 오정희, 최남정 (2008). 비구조적인 자유놀이 시간에 유아들이 보여주는 '진짜 재미있는 놀이'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28(1), 185-209.
- 조광제(2004). **몸의 세계 세계의 몸**. 서울 : 이학사.
- \_\_\_\_\_(2012). **몸, 현존의 벡터적 기반**. 2012 한국교육인류학회 초청강연회 자료집
- 조용환(1993). 체계적인 놀이 연구를 위한 '놀이'개념의 검토. **숙명여자대학교 교육 연구**, 2, 303-313.
- \_\_\_\_\_(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_\_\_\_\_(2008). <교육문화기술법 연습>. 수업 강의 노트.
- 전가일(2010). 관객 없는 지휘의 자유: 유아의 혼자놀이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교육인류학 연구**, 13(2), 115-146.
- \_\_\_\_\_(2013). 자유놀이에서 유아의 관계맺기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 경(2011). 연극놀이 활동이 유아의 주도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3), 211-238
- 최윤미(2010). 유아의 놀이성과 사회적 유능감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소영(2011). 또래관계 형성과정에서의 외톨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 변화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인애, 배지희(2007). 또래관계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유아들의 요구전략과 반응양상에 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6(12), 43-67.
- Ashiabi, G.(2007). Play in the Preschool Classroom: Is Socioemotional Significance and the Teacher's Role in Play.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5(2), 199-207.
- Bateson, G.(1972). A theory of play and fantasy. In G. Bateson(Ed), *Step to an ecology of mind*. London: SAGE.
- Cannella, G. S.(2002). Deconstruc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육이론 해체하기: 비판**

- 적 접근(유혜령 옮김), 서울: 창지사.(원판 1997).
- Coyne, S.M., Archer, J., & Eslea, M.(2006). "We're not friends anymore! Unless..."; The frequency and harmfulness of indirect, relational, and social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32(4), 294-307.
- Foucault, M.(1998). (L)'ordre du discours.(이정우 옮김). **담론의 질서**.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원판 1971).
- Gadamer, H. G.(2000). Wahrheit und methode, **진리와 방법**(이길우 외 옮김). 서울: 문학동네(원판 1960).
- Harrist, A. W., & Bradley, K.D.(2003). You can't say you can't play : intervening in the process of social exclusion in the kindergarten classroom.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8(2), 185-205.
- Heidegger, M.(1998). SEIN UND ZEIT, **존재와 시간**(이기상 옮김). 서울: 까치글방(원판 1927).
- Howes, C.(1987). Social competence with peers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Review*, 7(3), 252-272.
- Jo, Y. H.(1989). Understanding the boundaries of make-believe: An ethnographic case study of pretend play among Korean children in U.S.A. community.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King, N. R.(1979). Play: The kindergarten's perspective.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80(2), 80-87
- Langeveld, M.J.(1984). How Does the Child Experience the World of Thing? *Phenomenology + Pedagogy*, 2(3), 215-223
- Leavitt, R. L.(1994). *Power and emotion in infant-toddler day care*.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Lloyd, B., & Howe, N.(2003). Solitary play and convergent and divergent thinking skills in preschool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8(1), 22-41.
- Lobman, C. L.(2006). Improvisation: An analytic tool for examining teacher-child interaction in the early childhood classroom.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1(4). 455-470.
- Lofdahl, A., & Hagglund, S.(2006). Power and participation: social representation among children in pre-school.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9(2), 178-194.
- Parten, M. B.(1932). Social participation among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27(3), 243-269.
- Piaget, J.(1962). *Play Dreams and Imitation in Childhood*. NY: W.W. Norton & Co.
- Rubin, K.(1982). Nonsocial play in preschoolers: Necessarily evil? *Child development*, 53(3), 651-657.

- Saldana, J.(2009). *Coding Manual for Qualitative Researchers*. London: SAGE.
- Samuelsson, I. P., & Johansson, E.(2009). Why do children involve teachers in their play and leaning?. *Europ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Journal*, 17(1), 77-94.
- Savin-Baden, M., & Major, C. H.(2010). *New approaches to qualitative research: wisdom and uncertainty*. NY: Routledge.
- Smith, D. G. (1983). The meaning of children: A hermeneutic study. Doctoral dissertation, Dept. of Secondary Education, University of Alberta.
- Spradley, J.(2006). Participant Observation. **참여관찰법**(신재영 옮김). 서울 : 시그마프레스(원판 1980).
- Stanton-Chapman, T., & Hadden, D. S.(2011). Encouraging peer interactions in preschool classrooms: The role of the teacher. *Young Exceptional Children*, 14(1), 17-28.
- Trawick-Smith, J.(2009). Interaction in the classroom, **놀이지도 : 아이들을 사로잡는 상호작용** (송혜린, 신혜영, 신혜원, 조혜진, 수정 옮김). 서울: 다음세대(원판 2009).
- Van Hoorn, J.(2007). *Play at the Center of the Curriculum*. NJ: Pearson.
- Van Manen, M.(1994).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체험연구**(신경림 옮김). 서울: 동녘(원판 1990).
- Vygotsky, L. S. (1967). Play and its role in mental development of the child. *Soviet Psychology*, 5(3), 16-18.
- Wing, L. A.(1995). Play is not the work of the child: Young children's perception of work and play. *Early child Research Quarterly*, 10(2), 223-247.
- Wolcott, H.(1994). *Transforming qualitative data: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London: Sage.
- Young, E. L., Boye, A.E., & Nelson, D.A.(2006). Relational aggression: Understanding, identifying, and responding in school. *Psychology in the Schools*, 43(3), 297-312.

## ABSTRACT

This study, based on understanding the play features of the participants, explores early children's peer-relation strategies of maintaining and altering play frame and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strategies. Free play of 5-year-old children's was observed. The child-care center was visited 1 or 2 days a week, from March to October, 2012. The data collected were based from field notes,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their workbooks and more. The participants used strategies such as 'refusing', 'incapacitating', 'interpreting in a way to sympathize', and 'changing the rules of play' to maintain the play, whilst 'tell-on', 'being on the same side', 'accepting 3rd party' features were used to alter play frame. Participants using these various play-frame strategies experienced life implications of 'dialectic of exclusion and selection' and 'quiver of boundary'. This study, specifying efforts of the children to maintain and alter the play frame, will provide an understanding of perception of "social exclusion" to children, which has been viewed negatively in the past. It will also benefit on-site teachers in helping them understand peer-relationship within children and provide a more in-depth intervention for peer-relationship issues.

▶ *Key Words* : free play, play frame, peer-relation strategies, participant observation

논문투고	2013. 08. 15.
수정원고접수	2013. 10. 17.
최종게재결정	2013. 10. 22.